

익산시, 비상대응체계 구축

정현을 익산시장·윤권하 원광대병원장 공동 기자회견 코로나19 확산 차단, 시민들 강력한 방역수칙 준수 당부

익산시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최고 수준의 방역망을 유지하며 원광대병원과 공동 비상상황실을 운영한다.

특히 정현을 익산시장은 24일 원광대병원 윤권하 병원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전하며 시민들의 강력한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정 시장은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윤병원장과 함께 긴급 방역망 구축과 함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안전조치 등을 설명했다.

익산시와 원광대병원은 지난 18일 이후 현재까지 총 5천258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코로나19 검사를 모두 완료했다.

그 결과 41명이 양성, 나머지 4,98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10명은 원광대병원 내 병원 의료진과 직원, 환자, 보호자, 퇴원환자까지 총 3,627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이다.

일일별로 살펴보면 원광대병원 관련 25명, 병원인근 식당가 13명, 타 지역 접촉자 3명 등으로 이로써 지역 누적 확진자는 61명으로 늘었다.

시는 지역 내 추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 동원해 보다 강력한 방역망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 22일 원광대병원에 코호트격리 행정 명령을 통보했으며 행정 명령에 따라 원광대병원은 62, 71병동을 다음 달 5일 24시까지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해당 구역에 대한 이동 제한과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와 함께 젊은층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주말 젊은층 밀집 지역으로 분류되는 대학가와 모험동, 영등동 권역의 음식점과 카페, 술집 등 1,700여곳에 대한 전체적인 소독작업을 완료했다.

보건소는 신속한 코로나19 전수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상황 종료 시까지 일반 업무를 중단했으며 선별진료소를 보건소에 2곳, 익산 종합운동장(팔봉동)에 1곳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전 직원이 종교시설과 음식점 등에 대한 점검에 투입돼 방역수칙과 마스크 미착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22일부터 모든 체육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을 중단했으며 긴급돌봄을 제외하고 아동복지시설도 임시 휴원에 돌입하도록 조치했다.

윤 병원장은 "결과적으로 병원에서 코로나19가 시작돼 확산된 것에 대해 병원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엄격하게 강화된 검사를 통해 병원 내 감염자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정 시장은 "보다 강력한 방역망 구축을 통해 추가 n차 감염을 차단하고 있으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방역망을 유지하며 침체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대책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은 24일 원광대병원 윤권하 병원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전하며 시민들의 강력한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군산, 코로나19 확진자 잇따라 발생

군산 33번 접촉자 3명, 감염경로 조사 중 1명

군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며 추가 확산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4일 백중현 군산시 보건소장은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지난 23일 오후 군산에서 코로나19환자 4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군산 35번 확진자 A(40대)씨는 지난 20일 군산 33번 확진자와 접촉했으며 지난 22일부터 두통이 발생했다. A씨는 23일 군산 33번 확진자 접촉 통보를 받고 이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하고 이날 오후 7시 20분경 양성 통보를 받았다.

군산 36번 확진자 B씨는 지난 20일 군산 33번 확진자와 접촉했으며 무증상으로 23일 군산 33번 확진자 접촉 통보를 받고 이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하고 이날 오후 7시 20분경 양성 통보를 받았다.

군산 37번 확진자 C(20대)씨는 지난 20일 군산 33번 확진자와 접촉했으며 23일 두통이 발생했다. C씨는 23일 군산 33번 확진자 접촉 통보를 받고 이날 오후 7시 20분경 양성 통보를 받았다.

군산 38번 확진자 D(40대)씨는 지난 20일부터 무취 무미의 증상이 있어 23일 12시 40분 경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으며 이날 오후 10시경 양성 통보를 받았다. D씨의 감염경로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번 확진자들에 대한 방문지 CCTV를 확인하고 소독을 완료했으며 핸드폰 GPS·카드사용내역·DUR 및 방문지 CCTV 확인해 추가 동선이나 추가 접촉자를 확인하고 자가격리 시킬 예정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 푸드플랜 성공적 실행 '속도'

익산시가 '시민이 행복한 미래먹거리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푸드플랜(먹거리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시키기 위한 마비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24일 푸드플랜을 실행할 중간조직인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 전북도 타당성 심의 등 기본절차를 마치고 출연금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이사회 구성 등 조직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푸드플랜을 실행하기 위해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과 사회복지시설 등 단체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익산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을 마련했으며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어 푸드플랜을 실행할 중간조직인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전라북도 타당성 협의 등 사전절차를 마쳤으며 출연금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본격적인 조직구성에 나설 계획이다.

푸드플랜을 실행할 중간조직인 재단법인인 이사회 구성 등 법인설립 절차를 내년 3월까지 완료하고 센터장을 중심으로 사업 진행 상황에 맞게 1차년도 12명, 2차년도 16명, 3차년도 39명까지 조직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푸드플랜 성공에 열쇠가 될 민간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생산자 단체와 시민소비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푸드플랜 교육 회의 개최 등을 진행 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원예산업 발전 탄력

중장기 계획 농축산식품부 승인

군산시가 원예산업종합계획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원예산업 발전에 탄력을 받게 됐다.

24일 시는 원예농산물의 효율적인 생산 유통 조직화 구축 등 군산의 원예산업의 방향을 제시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았다.

이번 승인은 농식품부 평가단이 서면평가 발표평가를 거쳐 심사한 결과로 시는 오는 2021년부터 산지유통 관련 사업(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 발자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등) 사업에

상자 자격을 부여 받았다.

원예산업종합계획은 그동안 분산돼 추진되던 기존 산지유통종합계획, 과수산업 발전계획, 주산지 계획 등 원예산업 관련 계획을 통합한 종합계획이다.

지난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2022년까지를 포함한 원예산업 종합계획을 일괄 수립 추진했으나 군산시의 경우 원예농산물 생산 미비(전북의 0.7%)로 전북 원예산업종합계획 수립 시 군산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시가 원예산업 종합계획 승인을 받음으로써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원예산업종합계획 승인을 받게 돼 전라북도 원예산업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만드는 쾌거를 거뒀다.

신동우 먹거정책과장은 "이번 원예산업종합계획을 토대로 농업인 농협 등 사업 주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우리 시의 원예농산물 생산과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고 브랜드 가치 향상과 지역 농업인들의 실질적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원예산업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지난 2월부터 행정과 군산시 연합사업단, 지역농협, 생산자단체 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수차례 면담을 통해 의견수렴 하였으며 실무협의회 및 발전협의회를 통해 군산형 원예산업종합계획의 기본방향을 마련하는 등 이번 평가를 준비해 왔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 일반산단 진입도로 공사 내년 말 개통될 듯

익산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일반산단 진입도로 공사가 내년 말 조기 개통을 목표로 마비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7차분을 준공한 데 이어 2월 8차분을 착공해 공사를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차수분 계약을 맺어 추진 중인 이번 공사는 익산 제3산업단지를 시점으로 충남 연무C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1,874억원(공사 1,454억원,보상330억원, 기타90억원)이 투입됐으며 연장 11.88km(폭 20m)의 도로가 개설

된다. 시는 늦어진 공기를 만회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약 6km구간에 대한 포장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률과 잔여 공정을 고려했을 때 준공 시기는 오는 2022년 상반기 정도로 예상되지만 시는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 내년 12월 관련 부처와 협의가 완료되면 전면 또는 구간개통이 가능한 구간에 대하여 조기 개통할 계획이다. 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완료되면 익산에서 서울까지 통행시간이 약 20분 정도 줄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물류비 절감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대 LINC+사업단 내일 산학협력 세미나

군산대학교 LINC+사업단이 산학협력 방안에 대한 전문가 특강의 일환으로 오는 26일 오후 3시 30분부터 군산대학교 황룡도서관 2층 콘퍼런스홀에서 특강을 개최한다.

이 특강은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에 따른 산학협력 세미나이고, '중고차 온라인 및 경매 시스템'을 주제로 한다.

군산대학교 IINC+사업단 산하 사회혁신산학협력센터가 주관하며, 지난달 군산대학교에서 진행된 1차 특강에 이어 진행되는 것이다. 1차 특강은 '중고차 수출시장에서의 인증시스템'을 주제로 하였고, 2차는 '온라인 및 경매 시스템'을 주제로 하고 있어 중고차수출복합단지 조성을 앞두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소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청 강사는 서울자동차량매장 차세대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동차유통단지 운영 솔루션, IT전문인력 지원 서비스 등을 전문으로 하는 (주)지트인의 김재환 대표이사이다. /군산=남현봉기자

원광대병원, 최장담도내과 교수팀 '2020 우수논문상'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윤권하) 최장담도내과 정현구·김태현 교수 연구팀이 최근 스위스 그랜드호델에서 열린 2020년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정기총회에서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이 수여하는 '2020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팀은 고형성 간종괴에서 코어 비늘을 이용한 초음파 내시경 유도하 조직검사의 유용성(Endoscopic Ultrasound-Guided Liver Biopsy Using a Core Needle for Hepatic Solid Mass, 제1저자: 정현구/교신저자: 김태현)이란 주제로 발표한 논문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논문에서 연구팀은 기존에 주로 이용되고 있던 경피적 방법이 아닌 초음파 내시경 유도하 조직 검사 방법을 간내 고형성 종괴의 조직학적 진단에 적용, 그 유용성과 안정성을 보고하여 주목을 받았다. /익산=장양원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